촛지신문

2022년 4월 1일 간 발

총기 51년

제보 news@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69 호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종조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교절 기념법회에서 시상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기념 하고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 공 잘해라' 발간을 축하하는 독후감 공모전을 연다.

'불공 잘해라'는 한국 정통 밀교 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 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이번 독서 공모전은 불교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고 도서출판 운주 사가 후원한다. 지난해 12월 15일 발간된 '불공 잘해라'(김천 저, 불교 총지종 엮음, 도서출판 운주사)를 읽고 교도 및 독자 누구나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금)부터 6 월 30일(목)까지이며, 원고 분량 은 200자 원고지 20대 내외, A4용 지에 글자 10포인트 기준으로 2매 내외이다. 접수는 이메일 news@ chongji.or.kr과 불교총지종 통리원 홍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 능하다. 또 지방 거주 교도의 경우 재적 사원 주교에 제출할 수 있다.

수상자는 7월 중 총지신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창종 50주년 창교 절 기념 법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종령상 통리원장, 종의회의장상 등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불공 잘 해라' 도서는 전국 총지종 사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1907년 태어나 1980년에 열반에 든 원정 대성사의 일생은 한국사회 근현대사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 내며 살아온 삶이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밀양에서 만주까지 걸어서 망 명길에 올라 혹독한 고초를 겪는가 하면, 6.25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 포로가 된 외아들을 잃을 뻔했다. 이렇듯 격랑의 현실 속에서 고통 받 고 절망하는 민중들을 보면서 이들 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해주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 에서 찾았다.

밀교경전의 편찬과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였으며, 현대 한 국 밀교의 탄탄한 이론과 수행의 토 대를 갖추며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 는 민중을 구하는 새로운 불교로서 1972년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였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종단 최 초로 발간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 대기는 종조 선양으로 교화와 제도 의 길을 새롭게 열어 줄 것이며, 공 모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제13대 중앙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덕화사 주교, 제160회 임시 종의회서 선출

제13대 중앙종의회 의장에 현 부산 덕화사 주교 법상인 전수가 선출됐다.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는 지난 3월 3일 부산 법성사에서 제160회 임시 종의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중앙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가 지 난해 12월 제20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석이 된 의장에 법상인 전수를 선출했다. 신임 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3월 3일부 터 제13대 잔여 임기인 오는 2025 년 4월 24일까지다.

신임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는 1986년 2월 전법관정수계를 수지 하며 승직에 올랐다. 1989년 제3 대 중앙종의회 종의원을 시작으로 6, 7, 8, 9, 12, 13대 종의원을 역임



법상인 전수

했다. 2010년도 사감원장에 이어 2013년도에도 연임을 하였으며,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를 지내 는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왔다.

또 부산경남 밀교의 성지로 일 컬어지는 정각사를 비롯해 자석 사, 제석사 등의 주교를 맡으며, 중생 제도와 교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사감원, 총기 51년 정기 사무 지도 감사

지난달 23일, 통리원 등 종무행정 점검



정기 사무지도 감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기 51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가 지난달 23일 역삼동 총본산에서 진

행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사감 원장 법경 정사의 사임에 따라 부원

장 행원심 전수 주재로 이루어졌으 며, 서령, 남혜, 도우 정사 등 감사위 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부 장실에서 개최됐다.

모두 발언에서 행원심 전수는 "전 반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 는지 흐름을 잘 살피고 종단이 발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 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감사에서는 통리원 과 법장원 등 준비된 자료와 교무들 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남혜 정사는 정리 발언에서 "운영 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새로 시 작하는 통리원 제20대 집행부가 3

년 동안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 떤 일을 도와 주어야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전제하고, "지적사 항도 있겠지만 발전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도우 정사는 감사 준비에 대한 노 고를 격려하며, "종단의 발전을 위 해 젊은 세대의 교무들이 미래 지향 적인 제안과 의견을 많이 모아 달 라."고 당부했다. 감사결과는 다음 중앙종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알 림

총기 51년 제98회 춘계 강공회 개최

일시 : 총기 51년 4월 20일(수)~21일(목) 1박 2일

대상: 불교총지종 전 스승

장소: 경북 소노벨 청송

종/조/법/어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 간다.

= 기면안내

4면 불교총지종 사원사<3>

6면 기획연재/종조 원정대성사일대기<6화>

8면 밀교 인물사/6대 달라이라마

총기 51년 49일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2월 19일(토)~4월 8일(금)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5일 서울 시청 앞 점등식부터 30일 연등행렬까지

코로나19로 2년간 취소하고 축소됐던 연 등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오는 5일 오 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으 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연등회가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이어 29일부터 5월 10일까 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전통 등이 청계천 일대에 장엄한 빛을 밝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는 30일 거행된다. 전국 각지 불자들 이 모여 하나로 화합하는 어울림 마당이 30 일 오후 4시30분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저녁 연등회의 꽃 연등행렬이 흥인지문에서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 어지며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힌다. 올해는 예년처럼 성대하고 여법하게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종단도 서울경인교구 교도를 중심으로 연 등회의 대대적인 동참을 알리며, 2019년도 이미 완성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등회에 서 선보이지 못했던 종단의 장엄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엄등은 옴마니반메훔 본존과 육



합상을 연꽃잎 위에 올려놓은 것을 형상화하 여, 불교총지종 교의의 상징과 종지를 나타 낼 수 있도록 전통등으로 제작되었다.

총무부장 록경 정사는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후 전국 사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 이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리원에서 봉축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23일 집중 시무교육



총지종의 스승이 되기 위한 집중 시무교 육이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역삼동 본산 총지사에서 진행됐다.

시무(승직의 계를 받기 전에 부르는 명 칭)교육은 불교총지종에서 스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며, 이번 심화 집중 교육에서는 재무부장 승원 정사 가 '교리수행'과 '교화상담'을 주제로 강사 게 된다.

에 나섰다.

종단의 시무교육은 총 2년 과정으로, 기 본과정 7개월과 나머지 기간은 심화과정 으로 진행된다.

시무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스승은 종단 이 제공하는 사택에 입주하여 평소에는 4 분 정진 등 사원의 일과와 교육을 병행하

사회복지재단 총기 51년 제1회 정기이사회

신임 이사에 록경, 법상 정사, 보현 전수 선임



록경 정사



법상 정사



보현 전수

이날 이사 선임은 전임 원당 정사의 임기 만료와 덕광 정사, 법수연 전수의 사임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찬성 으로 임원 선임이 승인되었다.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사무국과 산하 시설의 2021년도 결산 심의와 석관실버복 지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및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재단이 실시숭인 사원 소속 저소늑가 정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참석자 전 원 동의로 지난해에 이어 지원을 연장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종단협 "러,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하라" 침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성명 발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민 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불교총 지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 장:원행 스님)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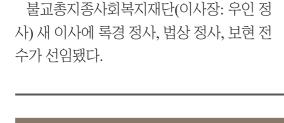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는 제 하의 성명에서 "지구촌에는 전례 없는 코 로나 팬데믹으로 소중한 많은 생명이 희 생됐고, 국가 간 교류 또한 제한돼왔다" 며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국가 간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충격과 공포를 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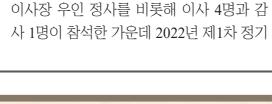
이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무고한 시

민이 살상을 당하고 위협받는 일은 없어 야 한다. 러시아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러 시아, 우크라이나 당사국만이 아닌 지구 촌 공생질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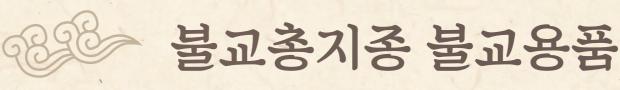
종단협은 또 "약소국도 주권을 행사하 며,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공생하는 국 종단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제사회를 위해 모든 국가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로 의 회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

>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남의 나라 를 공격하는 호전적인 왕은 나라를 망친 다고 하셨다"며 "양국의 지도자들은 국 민과 전 세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 이번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희 생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난달 24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앤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스님 추대법회 봉행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 추대법회가 3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추대법회에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이웃종교 대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했다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무원 스님

3월 20일, 정기종의회 만장일치 의결



무원 스님

천태종 제19대 총무 원장에 무원 스님이 임 명됐다. 천태종 종의 회는 지난 3월 20일 제 118차 정기종의회 본 회의에서 도용 종정예 하로부터 지명 받은 무 원 스님의 총무원장 임 명동의안을 만장일치 로 의결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 다. 1993년 6급 법계, 2013년 3급 법계를 품수했다. 2001~2007년 총무원 사회부장, 2003년 개성 영통 사 복원위원회 단장, 2011~2012년 금강신문 사장, 2011~2012년 종부원상 식부대행, 제15~16대 송의회 의원(15대 종의회 부의장 역임)과 17대 종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BBS불교방송 제115차 이사회 개최 2021년 결산감사 외 6개 안건 승인



BBS불교방송 제115차 이사회(이사장: 정문 스님)가 지난 3월 16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개최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BBS물교방송 재단 상임이사에 소계송 호법부상 현민 스님을 상임이 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2021년 결산감사 보고 안건을 가결하고, 회사 정 관에 없는 '본부'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유럽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명

지혜의는

유교경전의 전래, 서양 계몽사상 형성에 영향 문화는 타 문화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발전

근대사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양은 대체로 르네상스를 언급합니다. 그러 나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의 기간 은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전체를 동질적인 시기로 보기는 어려워 다시 몇 개의 시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의 구분 법이 미술사인데 르네상스이후 미술 사조의 흐름은 매너리즘 시기를 거쳐 바로크와 로코 코로 이어지고 그 이후는 낭만주의와 신고전 주의를 거쳐 인상파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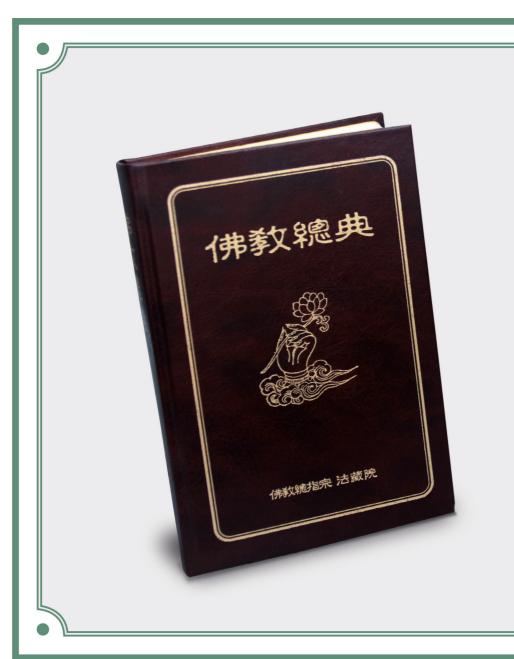
바로크 미술의 유행의 배경에는 신교와 구 교의 종교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1519년 루 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카톨릭과 개신 교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불러왔 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바로크 미술이 탄 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내부의 개혁으 로 전열을 정비한 다음 천국을 경험할 듯한 화려한 성당 건축을 통해 신도들을 결집하려 고 하였다면, 개신교측은 온갖 장식을 우상으 로 간주하여 없애버리고 아주 단순한 교회 장 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 드로 성당의 외관과 루이 14세에 의한 베르 사유 궁전의 공통점은 대칭적 구도에 의한 위 압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바로크 양식을 대표합니다.

루이 14세 이후 바로크는 로코코 양식으로 이어지는데, 귀족들의 실내장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소수의 귀족들의 사치스런 문화인 로코코는 당시 귀족들이 가장 선호하 는 양식은 중국풍이었습니다. 바로크의 직선 과 대칭적인 모습은 로코코에 오면 곡선과 비 대칭적 특징으로 변모하는데 이는 온전히 중 국에서 건너온 장식품의 영향이었습니다. 동 아시아 문명에서 정원은 기하학적 대칭 대신 에 비대칭과 곡선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 이후 이러한 귀족 문화는 신 흥 권력층인 부유한 자본가 계층에게도 이어 지게 됩니다. 이런 중국문화의 유행을 시누아 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귀족계급이 사라지면서 같이 막을 내립니다. 혁명에 뒤이어 나폴레옹의 집권과 몰락이 이 어지는데 이 시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유행합니다. 신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예 술 양식의 충실한 계승위에 프랑스 혁명과 나 폴레옹 시대를 충실히 표현했다면 낭만주의 는 신고전주의의 형식을 강조하는 흐름에 반 발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사조였습니다. 낭만 주의는 민족적 개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인상 파는 르네상스 이후 미술의 불문율과도 같은 원근법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술은 다른 장르나 사상에 비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 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인상파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자포니즘(Japonism)입니다.

르네상스는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라 는 중국의 발명품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친 유럽 의 미술사에 영향을 준 것이 시누아즈리와 자 포니즘이었고 한편으로 유교 경전의 전래는 계몽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18세기 이후 나타난 근대적 정치체제나 관료제는 서구 전통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동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시행되던 제 도였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서양의 근대 를 자체의 내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렸고, 외부의 영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물러나고 해외여행이 자 유로워지면 유럽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가 는 발걸음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 도 여행은 시각의 만족을 우선시하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과 조각과 회화에 매몰되 기 싶지만 모든 문화는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이후 특히 1968년 에 일어난 68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즈리(Chinoiserie)라고 합니다. 농시에 중국 - 유럽의 새로운 사상은 물교를 도외시하고 설 선교에 나섰던 선교사들에 의해 라틴어로 번 명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제 낡은 것으로 역된 유교 경전이 전래되면서 계몽사상의 성 지부하였던 동아시아 문명을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사원史

정성으로 일군 도량 ③

본산 총지사와 전국 36개 교화의 장을 열다

종단 사원을 신축하는 건 더 큰 수 고를 요했다. 스승들은 배를 타고 오고가다 태풍을 만나 위태로운 일 을 겪기도 하고 20리, 30리의 길을 하염없이 걸어 다녔다.

서원당 자리를 백방으로 물색하 고 주변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살 폈다. 그리고 건물을 세웠다. 건축 에 있어서는 문외한인 스승들이 관 리자로 나섰다. 시주금이 허투루 쓰 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세세생생 교도들을 품어야 할 법 계도량이기에 바르고 튼튼하게 지 어야 했다. 현장에 파견된 스승들은 숙박비도 아까워 현장 한 구석에 나 무판자로 간이 막사를 지어 공사를 마칠 때까지 머물렀다. 얼마나 철저 히 했는지 지금도 사원을 보수 점검 하는 이들이 정말 튼튼하게 지었다 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스승들은 전천후였다. 상담과 불 공은 물론 사원을 세우고 살림을 살 았다. 부엌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사원을 쓸고 닦고, 곳곳을 고치고 다듬는 모든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보시 받은 절량미는 일요일마다 다 음 일주일 동안 먹을 분량을 식구수 대로 덜어놓고 모두 헌상했다. 채 금요일이 되기도 전 어김없이 모자 랐다.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새벽불 공에 온 교도와 밥을 나눠먹곤 했기 에 스승은 수시로 죽을 끓여야 했 다. 바깥의 도량 청소는 비 오는 날 을 기다려 빗물을 받아서 했다.

철두철미하게 아끼며 도량살림 을 이어간 덕분에 사원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공양간 문고리에는 참 기름, 고춧가루, 쌀 등이 살포시 걸 려 있었다. 지붕공사라도 할 때면 스승과 교도가 모두 나와 나란히 줄 을 지어 시멘트를 날랐다. 어렵고 힘든 시절부터 함께 했기에 믿음과 교, 사택, 공양간 외 손님과 대화를

정이 남달랐다. 넉넉하지 못한 가운 데에도 더 많은 전당 건설과 교화 발전을 위해 희사를 빼놓지 않았다. 모두가 총지종의 교도이고 사원이 고 스승이라는 한마음으로 도량을 일궜다.

1978년 1월 19일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종단 총본산 총지사의 건 설을 완성했다. 재정적으로나 건축 과정에서 부딪친 온갖 어려움들을 물러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게 도 운 교도들의 원력은 총지사 성불탑 에 아로새겨 있다. 한국불교계에 생

나눌 공간을 따로 짓지 않았다. 사 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법의를 갖춰 입고 있을 여유도 없었다. 매 일 공식불공 후에는 하루도 빠짐없 이 교도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재난 소멸과 소원성취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고 농번기에는 논두렁 밭두 렁에 앉아 불공을 올렸다. 스승들은 스스로를 119구조대 대기조라고 여 겼다. 교도의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 지 않고 어디든 찾아다녔다. 교도들 은, 이런 일도 물어봐도 되나, 이런 일에 불공을 부탁해도 될까 하는 일 까지 상의했고 스승은 한 치의 망설

밀교수행법을 실천으로 보였다. 옹 기종기 모여 있는 주택 한 귀퉁이, 혹은 시장통 한 가운데에서 움을 텄지만 법력 있는 스승들은 물론이 고 초짜배기 스승조차 교도들을 신 심으로 이끌어 곧 번듯하게 일으켜 세웠다.

신규 사원을 개설하는 틈틈이 이 전과 확대를 거듭하여 36개 사원은 모두 몇 년 지나지 않아 여법한 자 체 도량으로 우뚝 섰다. 창종 후 20 여 년 만에 전국의 주요 지역에 교 화도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힘들고 고단한 이들을 밀법의 지혜와 자비로 보듬어 창종 20여 년 만에 전국 주요 지역의 교화도량 확보

활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와 활 력을 불어넣은 총지의 요람 총지사 는 이후 서울의 강남 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 종교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도량이자 한국불교종단을 대표하는 총지종 본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 교화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스승 까지 주교로 파견됐다. 큰 사원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운 철저한 수행과 교화 원력을 새로운 교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실천했다. 최소 7 년 이상 교도로서 염송정진하고 실 천해온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때로 1년, 2년, 스승 없이 교도 스스 로 사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계율을 지키고 불공을 올리는 데 승 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원은 애초부터 서원당, 자성학

임도 없이 동사섭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 한여름이면 하루에 정복 모시 저고리를 서너 번 갈아입어야 할 만 큼 불공이 많았다.

힘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밀법 의 지혜와 자비로 보듬었다. 외부 의 여건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총지종에 대해 낯설어할 뿐 아니라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초리가 없지 않은 현실에서 오직 곧고 진실한

오직 부처님께서 해탈한 경지에 도 달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불공한 공덕과 가피 덕분이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보였 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원당을 세우 고 헌공불사에 모여드는 교도들을 보면 불가사의한 법신 대일여래 부 처님의 가지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 다. 교화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몇 달씩 창고 등에서 임시로 법회를 보 기도 했다.

내마음의 등불 ^{수인사 정원 전수}

보시와 지혜를 함께 닦으라

항상 지혜 닦기만을 즐기고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총명하고 현명하지만 빈궁하여서 재산이 없으며, 보시하기만을 즐기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큰 재산은 있으나 어리석고 어두워서 지견(智見)이 없으며, 보시와 지혜 둘을 함께 닦으면 재물과 지혜를 갖추며, 둘을 함게 닦지 않으면 길고 긴 나날을 가난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분별업보약경, 分別業報略經』〈불교총전 P590〉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수인사 정원 전수님은 자석사 지현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 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 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6. 나를 개선시키는 '정진바라밀'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바라밀 실천 가운데 세 번째 수행인 인욕 행(忍辱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욕 은 참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참는가 하 면, 바로 욕(辱)됨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는 것입니다. 욕됨을 이기고 마음 다스리는 것이 인욕바라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인욕행을 잠시만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 안에 커다란 내 공(內工)이 쌓이게 됩니다. 내공이 쌓일 때, 이를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컬어 정진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진행(精進行) 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육바라밀 실 천수행 가운데 네 번째 수행바라밀인 '정진 수행', '정진바라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감하여 물러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행하는 모든 것이 바르고, 굳건 하다는 것으로서 조금의 나태함을 엿볼 수 없고, 변함이 없으며 꾸준함이 유지되는 것 을 말합니다. 즉 바른 행과 바른 실천을 꾸 준하게 행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게 으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을 말할 때 항 상 '용맹정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뜻과생각이 진리에 머물러서 선(善)함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입니다. 삼업을 둘로 나누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항상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고, 선행(善行)이 몸에 익은 것을말합니다. 선행(善行)의 지속적인 실천이라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행하고 그치는 것이아니라 꾸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정진 (事精進)과 이정진(理精進)입니다. 사정진

둘째, 마음으로 행하는 정진이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일심(一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정 진을 하면서 딴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바른 것에 몰두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러한 정 진 속에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행하는 것도 '마음으로 행하는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 비심'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 니다.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 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행하는 정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진은 '부지런히 노력 하여 방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노 력은 악법(惡法)이 아니라 선법(善法)을 행 하는 것입니다. 악법을 저지르는 것은 악업 정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장 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절하는 것 만이 정진이 아닙니다. 바른 생활을 부지런 히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이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감로를 얻고,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 영원히 평안한 곳에 도달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불공 가운데 서 원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 그것은 기도정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 는 것,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아 가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 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精進)이란 개선(改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아지는 것이정진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뜻이아닙니다. 나의 수행력이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그릇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넓고 크고 둥글고 속이 꽉 찬 사람이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몸과 입과 뜻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신구의 삼업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정진입니다. 악(惡)에서 선(善)으로 가는 것이 정진이며, 그 개선이 수행이자 불공입니다. 그러므로 정진이란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곧 정진입니다.

또, 정진이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진에는 먼저 원력(願力)이 전제되고 실천이 따라야합니다. 분명한 발원, 서원이 있어야 정진 그자체가 강해지는 법입니다. 서원이 있으면 정진은 자연 따르게 됩니다.

서원 없는 정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한다 하더라도 그 정진은 지속될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정진은 끝없는 원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진을 위해 먼저 원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력은 내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베스킨라빈스

BBS 부산불교방송 법경정사의 수요법문



법경 정사 (밀인사 주교, 철학박사)

그리고 이러한 원력과 정진에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간절함이란 바로 정성(精誠)과 절실함 입니다. 대충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있는 정진은 반드시원하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그 속에서 정진의 힘이 발휘됩니다.

원효스님은 정진할 때 장애가 생기면, "참회하고 권청(勸請)하고, 수희(隨喜)하고, 회향廻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하고 기이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 속에 오는 현상이 마음의 변화요,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회입니다. 끝 없는 참회가 정진입니다.

또한 정진을 수행과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도와 불공, 경전공부를 매일 매일 꾸준하게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정진이며, 이 정진은 나를 바꾸는 길이며, 나를 개선시켜주는 실천행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볼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한 달 동안 그대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 음을 내는 것이 곧 정진의 시작입니다. 이를 실천해서 일체를 성취하시고, 구경성불하 시기를 서원합니다. 〈최종회〉

악(惡)에서 선(善)으로 가는 것이 정진, 그 개선이 곧 수행이자 불공 서원 없는 정진은 존재하지 않아, 끝없는 원력이 바탕이 되어야

정진은 기도나 불공, 수행에서 참으로 중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수양 에 힘쓰며 이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말합 니다.

정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바로 '몸과 입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정진은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진'을 한 글자씩 나누어 살펴보면, '정 (精)'은 순일무잡(純一無雜)하다는 것을 의 미하고, '진(進)'은 용맹무퇴(勇猛無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글자를 이어서 말하면, '깨끗하고 잡스럽지 않으며, 날쌔고 (事精進)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일이 성취 될 때까지 끝없이 정진하는 것을 말하고, 이 정진(理精進)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 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말합 니다. 즉 일에 대한 노력이 사정진(事精進) 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 이정진(理精進)입니다.

또, 다른 두 가지의 정진이 있는데요, 하 나는 몸으로 행하는 정진이고, 둘은 마음으 로 행하는 정진입니다.

첫째, 몸으로 행하는 정진이란 남을 위해 몸으로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부지런히 선 법(善法)을 닦아서 법대로 실천하고 수행하 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행과 기도의 예를 들면, 간경이나 독경, 사경, 진언염송, 염불, 108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 종자가 되고, 선법을 행하는 것은 선업의 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법을 행하는 정진이 공덕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법의 정진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서 정진은 우리의 서원공덕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실천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올바른 삶을 팔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덟 가지 가운데 바른 정진 이라 하여 정정진(正精進)을 말씀하셨습니 다

그래서 정진이라 함은 부지런함을 지속적으로 행해나가는 것인데, 정견과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삼업청정을 지속적으로 행해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계청

<u>관성사</u>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명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이마트24 사마을금고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6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이때 대성사의 나이는 12세로, 망명길의 고초와 간도 땅에서 생존을 위해 겪어야 했 던 숱한 고난을 경험한 덕에 과묵하면서도 진중한 성품을 키우고 있었다. 남관의 초가 삼간 집은 밤이면 독립군들의 집회장소가 되었다.

어린 대성사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장군이 며 도인으로 보였다. 대성사는 당시의 경험 을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는 데, 화령 정사가 들었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 기는 인상 깊다.

부친의 동지인 독립군들이 모이면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대성사의 모친은 아끼지 않

나이 12세에 간도 땅에서 생존 위한 고난을 겪다

다. 그러자 빈 주전자가 묵직해지면서 이내 막걸리가 가득 찼다. 어리둥절한 대성사를 보면서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이내 하 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대성사의 눈에 독립군들은 모두 도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어른들의 장난이 마치 대성 사에게는 요술처럼 보였고, 어린마음에 깊 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이와 같은 환술 (幻術)을 치물(置物)이라 부른다 하였는데, 대성사는 후일 이런 환술에 마음을 빼앗기 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마음에 삿된 바람을 세우지 않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마음속에 새긴 것이다.

독립군들은 총에 대해서도 알려주곤 했다. 대성사 형제는 독립군이 휴대하던 체코제 총과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에 대한 해박 한 지식과 실제 작동법을 꿰뚫고 있었다. 독 립군이 어린 대성사 형제에게 이들 총의 특 징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는데, 대성사는 측근들에게 이때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곤

놈과 중국 기마병 몇 놈이 별안간에 달려와 서 공회임원과 기타 모두 8명을 체포하여 통화현 왜영사관으로 압송하였다."

그리고 통화현을 비롯해 서간도 곳곳에서 일본 군경의 체포와 수색, 압수작전이 벌어 진 정황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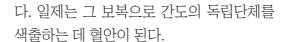
1920년 5월 1일 일제의 간도파견원이 내각총리대신과 경시총감, 검사총장, 조선 군사령관 등에게 전보로 보고한 만주지방 독립운동가 동향 보고에 따르면, 대성사의 부친 손기현은 유하현 삼원보의 서로군정서 산하 독립단의 지단인 환인현 한교공회의 외교원으로서 주요한 감시대상 인물로 기록 돼 있다.

서로군정서는 이상룡을 사령관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다. 이시영의 신흥무 관학교 출신들이 서로군정서의 독립군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서간도를 비롯한 남만 주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두 모여 만 든 단체이다. 수천 명이 속한 군사조직으로 평안북도 한만 접경지대에서 일본군과 자주

66

일제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여서 늘 감시와 토벌의 대상이 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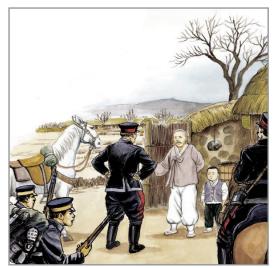


1919년 조선총독부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일명 제령 제7호를 선포하는데, 오로지 독립운동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 한, 토벌과 처단 목적의 법률이다. 그 조목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공동으 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하 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 이 영은 제국신민(조선인)에게도 적용한 다'는 내용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을 대 상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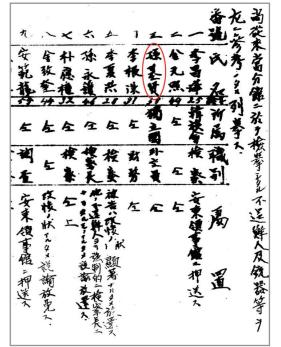
일제는 봉오동 전투의 참패 후 이 제령 제 7호를 근거로 1920년 10월 철령 주재 보병 제19연대와 공주령 주재 기병 12연대를 출 동시켜 서간도 일대의 독립운동가 체포에 나섰다. 당시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조선인 사냥을 경신참변이라 부른다.

1920년 10월 6일 재 안동 일본 영사관 퉁 화 분관 주임 혼다(本田)는 일본 외무대신에 게 독립군 체포 보고서를 보냈다. 1919년 3 월부터 유하현 삼원보와 환인현 등 각지에 설립된 무장 독립군 세력이 상해 임시정부 와 러시아 지역의 세력과 결탁하여 조선에 침투하여 전투를 벌이니 일당을 토벌하고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총 97명의 독립 군이 체포되었다.

보고서에는 녹립군들이 사들인 종기가 러 "환인현 한교공회에 지난 7일 적 경찰 몇 이고 독립전쟁의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했 제 엽총 160자루, 중국제 단발식 권총 111 원으로 식별되어 있다.



일제는 무장 독립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밀정들을 풀어 간도 일대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 했다.



1920년 10월 6일 일본 외무성 체포보고서. 대성사 부친 손기현은 홍범도 장군과 연계된 인물로 지목, 함께 체포된 90여 명 중 세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 있

정, 영국제 보병총 14자루, 자동권총 40정, 러시아제 소총 170정, 러시아제 자동 권총 230정, 영국제 소총 16정, 기관단총 12정, 윈체스터 군용총 32정, 미제 권총 20정, 중 국제 권총 49정, 로시아 권총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중 권총과 보병총 수 정과 함께 군복 80벌이 압수됐다.

이로써 당시 서간도독립군의 무장상태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구속자 90여 명 중 보병총 16정, 윈체스터 군용총 21자루, 중국 손기현은 세 번째 주요 인물로 독립단 외교

독립군과 함께 과묵하면서도 진중한 성품으로 자라 구속자 90여 명 중 부친 손기현은 세 번째 주요 인물

고 끼니를 내놓았다. 옥수수에 감자, 때로는 조와 수수로 지은 더운밥은 메마른 시절 동 지들의 주린 배와 가슴을 데웠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늦은 밤까지 일제를 물리칠 계책과 작전을 짜던 독립군들이 초 롱초롱한 눈망울로 지켜보던 대성사에게 심 부름을 시켰다.

"얘야, 탁주가 떨어졌으니 주막에 가서 이 주전자에 받아오려무나."

대성사는 의심 없이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문을 나서려 했다. 수염을 기른 독립군 중 한 사람이 대성사를 불러 세웠다.

지금 밖이 줍고 밤이 깊었으니 멀리 갈 것 없다."

그리고 대성사에게 빈 주전자를 들고 있으 소식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 라 하고는 엽전꾸러미를 그릇에 던져 넣었

일제의 극악한 탄압과 살육 속에서도 3.1 운동이 한반도 전역과 만주 일대, 중국과 미 주까지 교민이 살고 있던 전 지역에서 독립 운동의 불꽃을 태우게 된다. 1919년 겨울 김 원봉과 동지들에 의해 의열단이 조직되고 만주 전역에서 무장투쟁에 나서자는 의지가 퍼져갔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포수단과 독립군은 간도 땅 전역을 종횡무진 할 뿐 아 니라 압록강을 넘어 일본군을 습격하는 전 과를 올린다. 일제는 눈엣가시인 무장 독립 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밀정들을 풀어 간 도 일대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낱낱이 감

교전을 벌였다. 압록강 넘어 삼수군의 일본 군 주재소, 강계의 삼강주재소와 문옥면사 무소 등을 습격해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친 일파를 처단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여 서 늘 감시와 토벌의 대상이 됐다. 1920년 6월 독립군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부대의 1 개 소대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종성군 의 일본군 헌병 국경초소를 습격 격파하고 이어 출동한 일본군 남양 수비대를 만주로 유인하여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투 의 결과는 일본군의 참패였다.

대한 녹립군이 작전을 벌여 정규 일본군과 1920년 5월 1일자 독립신문 3면 서간도 의 전투에서 압승을 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시아 보병총 90자루, 자동소총 60정, 미제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자신감을 높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2년 1월 1일 ~ 5월 31일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대일여래를 교주로, 준제법과 사종수법 등 실천수행 체계 정립



총지종의 역사

01. 전사: 정통밀교종단의 발아 서울선교부, 교화의 시작 ②

회당 대종사의 넓은 도량과 인품, 원정 대 성사의 지혜와 박식한 교학을 바탕으로 진 각종은 나날이 발전했다. 1963년 회당 대 종사(대한불교진각종을 개종한 창종주로서 진각종 공식 칭호인 '진각성존 회당 손규상 대종사'에 준해 본지에서는 회당 대종사로 기술한다.)가 입적한 후 종단의 최고지도자 인 총인직을 이은 원정 대성사는 통리원, 종 의회, 사감원의 체계를 갖추고 진각종이라 는 종단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했다. 현재 진 각종 총본산이 있는 하월곡동 대지를 매입 하여 불사를 시작, 종조비와 사리탑을 비롯 해 회당 대종사의 위업을 추모하는 불사를 진행했다. 교화에 가일층 매진하여 진각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갈수록 커져 가는 종단의 규모에 걸맞는 경궤와 수행법 을 정립하여 밀교종단으로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교리적 기반을 탄탄 히 하는 데에도 열정을 쏟았다.

진각종과의 석별

대성사는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밀교의 의궤와 수행법 을 갈무리하기 위해 경전을 탐독했다. 특히 1968년 한일불교도대회에서 삼밀의궤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본불교 대표의 지적 을 계기로 정통 밀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매진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불설대승장엄보왕경』과 『칠구지 불모대다라니경』 등에 육자대명왕진언과 준제진언이 설해진 것과 『현밀원통성불심 요집』에 밀교의궤법이 수록되어 있는 것 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검증 을 마무리한 대성사는 1971년 이의 시행을 원의회와 종의회에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다는 데 대다수의 승직자와 교도들이 공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대종사 재세 시 시 행했던 수행법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대두되면서 종단은 흔들렸다. 대립 과 갈등이 심화되고 분종의 조짐마저 보였 다. 결단을 내려야했다. 원정 대성사는 20 여 년간 회당 대종사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온 종단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다. 분열을 원 치 않았던 대성사는 1971년 12월 총인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회 당 대종사의 영전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대성사를 따르던 이들의 동요와 분란을 막기 위해 아예 종적 을 감추고 칩거에 들어갔다.

백일정진과 깨달음

바른 밀교수행법을 정립하여 진각종을 정 통밀교종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던 대 성사의 뜻은 무산되었다. 정법 밀교에 대한 무지와 종단을 혼란에 빠트릴지 모른다는 오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 았다. 그러나 일생을 걸고 실천했던 중생구 제의 대원력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옴마니반메훔으로 불철주야 기도해 생사가 위태로웠던 아들을 구했고, 법신 부처님의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가지력(加持力)을 생 생하게 확인했다. 진언염송의 가피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수많은 밀교경전 속 부처님 의 가르침에서 찾았다.

잊힌 비밀의궤법과 다라니의 밀교수행법 을 이대로 묻어야 하는가?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은

원정 대성사는 1972년 1월 1일 새벽, 영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의궤를 보완해야 한 등포구 상도동의 은거지에서 다시 정진을 66

부처님께서 법문으로 보여주실 것이니 반드시 불공부터 하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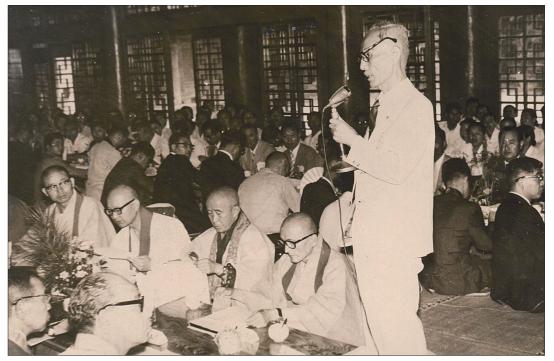
시작했다.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법신 부처 님을 마음 안에 온전히 담기 위해 염송했다. 민생고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참된 밀교수행법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 몸과 마 음을 바쳤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해 탈을 얻는 진리의 방편을 체득하고자 온 몸 을 던졌다.

정진이 이어졌다. 두 손으로 맺은 결인은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과 자비의 화현 관 세음보살님, 그리고 간절한 진언행자를 하 나로 이어주었다. 지극한 진언 염송이 거듭 되었다. 우주의 소리와 고통 받는 중생들의 소망이 소용돌이쳤다. 진언염송의 뜨거운 염원과 정통·정법의 밀교종단 창종을 위한 서원이 대성사의 몸과 마음을 채웠다.

백 일째 되는 4월 7일 밤, 원정 대성사는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금관을 전해 받고, 다 음날 밤 다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한 줄기 서광과 함께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 법으로 교화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관세음 보살님은 현몽으로 대성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한 적 티 없이 바르고 깨끗하고 완전무결 한 밀교법으로 중생을 고난에서 구하라는 불보살님의 부촉이었다.

곧바로 교상확립에 착수했다. 정통밀교종 단으로서 법신불인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 님을 교주로 모셨다. 『불설대승장엄보왕 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교리의 기틀을 갖췄다. 그리 고 『현밀원통성불심요집』 등 밀교경전 에 근거하여 준제법과 사종수법의 밀교비 법과 관법, 의궤 등 실천수행의 체계를 정립



서울선교부, 교화의 시작

각고의 정진과 부처님의 가지력에 힘입 어 정순하고 완전무결한 정통밀교 사상과 수행체계를 완성한 원정 대성사는 드디어 1972년 8월 21일, 백일 정진하던 곳을 떠 나 상봉동의 자그마한 2층 양옥집으로 자리 를 옮겼다. 대성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록 정, 환당, 청암, 현수, 불멸심, 법장화, 대자 행, 복지화 등 진각종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대성사와 마주한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밀교의 비법으 로 깨달음을 성취한 원정 대성사의 근엄하 고 단정한 위의와 확신에 찬 법문 앞에 두 손이 모아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옴마니반 메훔' 염송이 절로 솟구쳤다. 스승과 교도들 은 바른 밀교수행법으로 중생을 구제할 뜻 을 세운 원정 대성사와 앞날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8월 27일, 마침내 새로운 불교 교화의 세 상이 열렸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이 중생들의 기도에 마땅히 모습을 드러내는 진언밀교의 교화가 시작 되었다. 상몽농 양옥십은 서울선교부의 근 거지가 되었다.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미 진각종 총인 시절 로 하시오."

부터 대성사를 흠모해 애타게 찾아 헤매던 이들이 한걸음에 달려왔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 서울에서는 물론 멀리 경 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이 문을 두드 렸다. 이십 리 밖에서 걸어오는 교도들이 있 을 정도였다. 이들에게는 고단한 삶의 그늘 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려운 자리라고 여겨 잔뜩 긴장하기도 했지만 자애로운 미 소로 맞아주는 원정 대성사에게서 편안함 을 얻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풀어놓았 다. 먹고사는 문제, 고부간의 갈등, 부부 사 이의 불화, 가족의 질병과 자식 걱정 등 눈 물과 한숨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수많은 사 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원 정 대성사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았 다. 한 명, 한 명의 고민에 정성껏 귀를 기울 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밀교 수행법을 차분하고 세 심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일러주었다. 원정 대성사는 말을 맺으며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법문으로 보여주실 것이니 반드시 불공부터 하시오.

"법계에 물어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불 큰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남녀노소의 공하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터이니 꼭 그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정성준 교수의 以正心号史

자유로운 영혼 제6대 달라이라마 짱양갸초

티벳의 달라이라마 제도는 인도의 호법왕 아쇼카왕의 못다 한 꿈을 티벳에서 새롭게 펼친 것이지만, 티벳의 역사는 주변국의 부 침과 종파의 이해가 겹쳐 결코 순탄치 않았 던 달라이라마 활불들의 삶을 보여준다. 달 라이라마 가운데 가장 특이한 행적을 보인 것은 제6대 달라이라마인 짱양갸초(tshangs dbyangs rgya mtsho, 1683-1706)이다. 역 대 달라이라마는 티벳인들뿐만 아니라 인 도와 몽골 등지의 이민족이 지명되는 경우 가 있는데, 짱양갸초는 인도 동북부 출신이 었다.

제5대 달라이라마의 입적 후 활불인 제6 대 달라이라마를 찾는 과정은 제자이자 섭 정인 쌍계갸초(1653-1705)에 의해 비밀히

하였다. 티벳의 겔룩빠는 제5대 달라이라마 이후로도 여전히 입지가 확고하지 않았다. 1705년 몽골의 라상칸은 섭정인 쌍계갸초 를 제거하고, 라사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 였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혐오했던 짱양갸초 는 제5대 판첸라마로부터 받은 비구계를 반 납하였다. 판첸라마를 비롯한 수뇌부는 적 극적으로 말렸지만 쌍계갸초의 간섭이 없 었던 짱양갸초는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해 평민이 되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평 민이 된 짱양갸초는 시를 즐겨 짓고 방탕했 으며 술을 좋아하고, 뽀딸라성 남쪽의 숄마 을의 매음굴을 방문하기도 했다. 찡양갸초 는 달라이라마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았

또한 제자들도 있었는데, 겔렉갸초(1641-1713)는 세라사원의 주지가 되었고, 아왕잠 빠(1682-1762)의 이름도 전하지만, 역사적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제6대 달라이라마 짱양갸초는 인생 전반 의 삶을 통해 스스로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았 다. 그는 티벳의 불안한 정세 속에 그가 즐 기던 작시와 풍류를 희생하였지만, 그가 남 겼다는 제자와 종교활동은 그가 실권을 포 기한 댓가로 말년에는 종교적 삶에 헌신한 사실을 보여준다. 짱양갸초가 남긴 다음의 시는 승려로서 그의 삶이 바뀌었음을 전하 는 것이다.

무상(無上)과 죽음을 마음 깊이 숙고하지

66

무상(無上)과 죽음을 마음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석하고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결국은 바보와 다름없게 된다

"

제5대 판첸라마에게 받은 비구계 반납 후 사라져 꽁코놀 구금 후 사망설과 탈출 후 은거설 등 혼재 청해지역 활동설도 있으나 역사적 단정은 어려워

진행되었다. 쌍계갸초는 스승의 명령에 따 라 달라이라마의 입적을 무려 15년이나 세 상에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티벳을 둘 러싼 몽골과 만주, 중국의 외교 관계로부터 티벳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쌍계갸초는 스승의 환생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1688 년 제5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인 짱양갸초를 발견하고, 라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초나지 역에 격리시켰다. 짱양갸초는 처음에 살루 사원 주지의 환생으로 위장했다가 1697년 에 제5대 달라이라마의 입적이 공식 발표되 면서 비로소 전생 달라이라마의 환생으로 지정되었다.

라사로 이송된 짱양갸초는 제6대 달라이 라마직을 승계하고, 제5대 빤첸라마인 롭상 짱양갸초가 달라이라마직을 승계한 당시 시대적 배경은 만주 강희제의 등극으로 청 의 세력이 팽창하면서 몽골과 티벳을 압박 지만, 일반 승려의 옷을 걸치고 말이나 가마 대신 걷는 것을 좋아했다. 짱양갸초는 1702 년에 이르러서야 수행을 위하여 그러한 행 동을 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짱양갸초는 철이 들어 다시 비구계를 받 기로 결정하였지만 몽골의 라상칸은 소년 인 예셰갸초를 내세워 제6대 달라이라마로 공인하고, 대신 짱양갸초는 라사에서 감금 하였다가 북경으로 보내졌다. 다시 암도지 방의 꽁코놀에 구금되었다가 이후 라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는 열병으로 사망했 다고 전해진다.

일설에는 짱양갸초의 제자인 아왕룬둡달 계는 비밀한 스승의 전기를 남겼는데, 여기 에 따르면 짱양갸초는 꽁코놀을 탈출해 승 초는 청해지역에서 승려로 활동하면서 작 롱(Jag rong) 사원을 비롯한 13개 사원을 재 건하고 쿠시칸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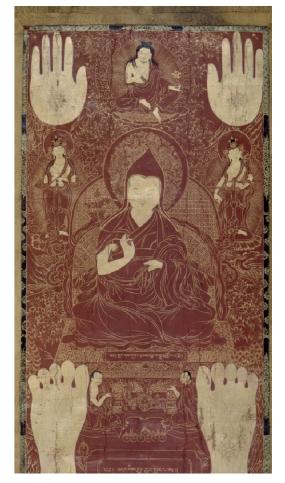
아무리 명석하고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결국은 바보와 다름없게 된다

한편 몽골의 라상칸에 의해 세워졌던 예 셰갸초는 티벳인들에 의해 축출되었고, 이 후 제7대 달라이라마로 지목된 것은 1708 년 리탕 출신의 껠상갸초였다. 제6대 달라 이라마의 순탄치 않은 삶은 현재 티벳에서 일어난 비극과 닮았다. 그 전생을 보여주는 제6대 달라이라마 짱양갸초가 남긴 시에는 그의 못다 한 시인의 꿈과 비원(悲願)이 서 려있는 듯 하다.

하얀 학이여, 그대의 날개를 빌려다오 리탕지역을 한바퀴 돈 후에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네.







제6대 달라이라마 짱양갸초. 짱양갸초를 형상화한 그림도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4,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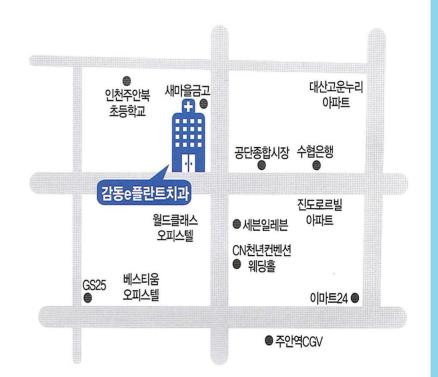
화음사 교도 광고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색심불이를 제불의 내증의 법문이라 설 파한 각번은 『심월륜비석』에서 『심지 관경』을 인용하며 심과 월의 관계를 계 속 이어나간다.

'(범부가 보는 것도) 보리심의 상(모양) 이어서 청정하고 원만하여 월륜과 같다. 가슴속 위에 밝고 쾌활하게 머무는 것이 다'라는 경문에 이르러 보리심과 월륜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어 '만약 불퇴전을 신속하게 얻고자 한다면 아란야 및 공적한 거처에 머물며 몸을 단정히 하고(端身) 정념(正念)으로, 여래금강박인(如來金剛縛印)을 맺고, 눈 을 감고 가슴 속의 밝은 달을 관찰하며, 이 사유를 하면서 운운…'의 관수(觀修)가 설 교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명월의 관찰 정도(이를 삼매 라고 한다)를 삼마지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마음을 월륜에 연결하여 성취 관찰한다. 이를 보살의 관보리심, 성 불삼매라 한다. 만약 범부로 하여금 이 관 을 닦게 하는 자는 소기(所起)의 오역(五 逆), 사중십악(四重十惡) 및 일천제와 같

밀교의 심(心)과 형(形) ③

은 죄 모두 소멸하여, 즉 5종의 삼마지문 (三摩地門)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을 다섯 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찰나삼매, 둘째는 미진(微塵)삼매, 셋째는 백루(白縷)삼매, 넷째는 기복(起伏)삼매, 다섯째는 안주(安 住)삼매 운운'하며 이것이 성불삼매이며 다섯 가지 삼마지문으로 설파되고 있다.

『심지관경』권 제8, 『수호국계주다 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尼經)』(牟尼室利 와 공역),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 攝眞實經)』 권2 등 반야삼장역의 경전류 에서 오종삼매가 설파되고 있다.

경전은 아니지만 『무외삼장선요』에 는 오종심의 뜻이 설파되어 있다. 『무외 삼장선요』는 선무외와 경현(敬賢)의 불 법에 대한 대론이 실렸다. 그 가운데 삼마 지에 대해 '다음으로 삼마지를 닦을지어 다, 말한바 삼마지라는 것은 다시 각별한 법은 없느니라. 곧바로 일체중생의 자성청 정심이니, 이름하여 대원경지라 한다. 위 의 제불부터 아래 보잘것없는 꿈적거리는 벌레 따위(蠢動)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등 함으로서 증감함이 없느니라. 다만 무명망

상의 객진으로 덮힌 것이기 때문에 유전생 사(流轉生死)로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다. 행자는 응당 안심 정주할지어다. 일체 의 모든 경계를 연하지 말지어다. 가정하 여 하나의 원명(圓明)을 마치 정월(淨月) 과 같다고 생각할지어다'라고 말하고, 또 한 '즉 이 자성청정심은 세 가지 뜻으로써 의 마치 달과 같은고로, 첫째 자성청정의 뜻은 탐욕의 때를 벗기 때문이고, 둘째 청 량(淸凉)의 뜻은 성을 내는 뜨거운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고, 셋째 광명의 뜻은 우치 의 어둠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달은 사대 로 이루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깨뜨려 보낸 다(壞去)'고 했다.

『보리심론』에는 삼마지에 대해 '진언 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관하고 나서 어떻게 능히 무상보리를 증득하는가? 마땅 히 알라. 법 그대로[法爾] 보현대보리심(普 賢大菩提心)에 마땅히 머물러야 하나니, 일체 중생은 본래 정식(情識)이 있어서 탐 냄,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에 속박되어 있 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와 뛰 어나고 묘한 지혜로 이 매우 깊은 비밀유가

(秘密瑜伽)를 설함으로서 수행자로 하여금 내심(內心) 가운데 흰 월륜(月輪)을 관하게 한다. 이 관함을 통해 본심을 비추어 보니 담연(湛然)하고 청정함이 마치 보름달의 광명이 허공에 두루 차서 분별할 바가 없는 것과 같아서 또한 각료(覺了)라 이름하고, 또는 정법계(淨法界)라 이름하고, 또는 실 상반야바라밀해(實相般若波羅蜜海)라 이 름하니, 능히 갖가지 한량없는 진보삼마지 (珍寶三摩地)를 품고 있는 것이 마치 보름 달이 깨끗하여 분명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른바 일체 유정은 모두 다 보현심(普賢 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의 마음을 들여다보매 그 형상이 월륜과 같 으니, 왜냐하면 월륜으로 비유하면 이른바 보름달의 둥글고 밝은 체(體)는 보리심과 서로 같기 때문이다. 무릇 월륜에는 열여 섯 가지 구분이 있는데, 『유가경』에 금 강살타(金剛薩埵)로부터 금강권보살(金剛 拳菩薩)에 이르는 십육대보살(十六大菩薩) 운운'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오종삼매와는 달리 16대보살의 수행과정이 녹아 만다라 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일경소』에는 월륜·본존과 자 륜관이 설파된다. 즉 「세상성취품」에서 '수행자는 그 아주 원만하고 맑은 월륜에 머문다고 관상해야 한다. 안에 성심껏 여 러 자(字)를 관상하여 차례에 따라서 행하 고'의 『대일경』의 글의 해석 속에 명확 해져 있다.

또 『대일경소』에는 자문(字門)이 설 파되어 일자문(一字門)에 무량의 뜻을 갖 춘다고 하며, 또한 총지(惣持)의 뜻이 설파 되어 있다. 또한 『수호경』에 나오는 옴 자관에는 '너는 지금 마땅히 코 끝에 월륜 을 관상해야 하느니라. 월륜 가운데에서 옴자관을 행하라. 이렇게 관하고 나서 후 야분(後夜分)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 룰 것이니라'라고 한다. 그리고 옴자에 법 신의 뜻을 설파하고 성불의 유래가 밝혀져 있다. 이들은 다라니에 의거한 성불사상을 설파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음과 달이 밀교경전이나 의궤·논서 등을 통해 불이일체로 받아들 여졌다. 월륜으로 보는 마음은 진언밀교 에서의 '삼마지'가 어떻게 부처의 속뜻(内 意)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표 현하고자 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관법(삼밀실천)이 부처와 우리를 잇는 깊은 수도원리가 되어 밀교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우리가 현생에 온갖 삼라만상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연 맺 어 산다는 것은 축복이자 행운이며 기쁨이 고 또한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마치 더운 날의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함 같고 여 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얹혀진다면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은은한 향수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 아닌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바 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같은 것이기도 하지

마치 하얀 겨울밤에 내려서 온 대지를 예쁘 게 감싸 안은 뽀얀 눈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 대화라는 것은 어떨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끼리는 서로서로 정 답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앓이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표현에 있어서도 너와 나의 주 고받는 인연 중에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이 라는 것은 이는 마치 선물하는 즐거움과 같 만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덧붙여진다면 은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붉은 장

미 한 다발을 들고 온종일 그대의 집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살이 속에 색상은 또 어떨 까?

우리에게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 일곱 빛깔 무지개색이라면 좋아하는 마음 은 붉은색이고 그토록 가슴 절절한 사랑하 는 마음은 파란색이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요즘 만인이 즐기고 있는 커피에 비견한다면 좋 아하는 마음은 마치 프림이 섞인 달달한 프 리마 커피 같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은은함이 함몰되어 있는 블랙 커피이자 아 메리카노와 같은 것이다.

불교 경전 법화경에 '회자정리(會者定離) 요 거자필반(去者必返)'이란 말이 있다.

인연이란 반드시 만남의 인연도 헤어짐의 인연도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좋아함의 인연이란 것은 손수건을 적시며 이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랑함 의 인연이란 것은 뒤돌아서서 남몰래 눈물 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가장 강열한 교집 합의 글밭이 편지라면 좋아하는 사람의 편 지글 같은 경우에 편지글 속에는 늘 '좋아한 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들이 즐비하고 사 랑하는 사람의 편지글 속에는 그저 안타까 움과 응어리진 한숨만 살아 숨쉰다.

인간이 연애를 할 때는 아름다운 오해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참담한 이해를 한다 고 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

까지도 끌고 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귀에서부터 시작 이며,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이다.

마음의 문은 또 어떠할까?

좋아하다 싫어지게 되면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일 경우에는 귀를 막아 버리면 끝이 나 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눈을 감아도 포도송 이 같은 구슬로 맺히는 것이다.

수능재주(水能載舟) 역능복주(亦能覆舟) 라 했던가?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 를 뒤집기도 하듯이 좋아하는 마음도 사랑 하는 마음도 다 사람의 마음인 것을 우리 사 좋아하는 마음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상 회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세상 황이 종결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 끝 _ 을 교화하는 데에 힘써 노력했으면 하는 마 음 간절하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기로스승	우인	2/21	20,000	동해사	김진화	3/3	10,000	수인사	정순득	2/28	20,000		탁상달	3/15	10,000
	황성녀	2/28	20,000		법선	2/21	20,000	실보사	무명씨	1/28	20,000	정각사 지인사	안한수	3/9	20,000
	공덕성	2/21	40,000		송인근	3/18	20,000		무명씨	2/21	20,000		탁상달	2/8	10,000
	밀공정	2/21	20,000		신성희	3/15	20,000		박성호	3/18	30,000		김미혜	3/13	20,000
	법수원	2/21	20,000	만보사	강명순	3/17	20,000		서령	3/16	30,000		법우	2/6	10,000
	법지원	2/21	20,000		정덕순	2/17	10,000		이순옥	2/21	10,000		유승태	3/13	20,000
	사홍화	2/21	20,000	밀인사	정정희	3/3	10,000		관득	3/8	10,000		인지심	2/6	10,000
	상지화	2/21	20,000	법천사	반야심	2/28	20,000		서연희	1/23	10,000	초록	강혜란	2/25	20,000
	선도원	2/21	20,000	법황사	박미경	2/25	20,000	실지사	연화법	2/27	10,000	어린이집	이지희	2/25	100,000
	수증원	2/21	20,000		인선	2/21	10,000		유승우	3/13	20,000	총지사	강승민	3/10	10,000
	승효제	2/21	20,000		정계월	2/21	10,000		이도현	3/13	20,000		김정환	3/11	10,000
	시각화	2/21	20,000	벽룡사 볏고을 어린이집	묘원화	2/21	20,000		이루나	3/13	20,000		록경	2/22	40,000
	안주화	2/21	20,000		승원	2/21	20,000		이서현	3/13	20,000		백귀임	3/10	20,000
	연등원	2/21	20,000		이민선	3/1	200,000		정우석	3/3	20,000		신현태	3/15	20,000
	일성혜	2/21	20,000						정혜정	2/27	20,000		이수경	2/14	10,000
		· ·		사원명 무기명	김갑선	2/21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양지 어린이집	진금선	2/16	200,000		홍수민	3/16	20,000
	자선화	2/21	20,000		남영애	3/2	60,000		선급선	2/10 200,000	EJIOI	김평석	3/14	30,000	
	진일심	2/21	20,000		박필남	3/15	20,000		정동숙	2/28	/28 100,000	통리원	박근진	3/4	20,000
	총지화	2/21	20,000		박현정	2/24	20,000	운천사		반야화 3/7		포레스타	최유정	2/26	300,000
	최상관	2/21	20,000		성주현	3/14	10,000		반야화		30,000	00 7단지어린이집			
	해정	2/25	10,000		최영미	3/10	100,000		이성미	2/7	50,000		강점이 묘심해	2/27 3/14	20,000
단음사	신말심	3/7	10,000		하명순	2/25	20,000		구미자	2/28	20,000	화음사	포검에 무명씨	2/4	10,000
	장정숙	3/7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1/25	1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2/2	10,000		무명씨	2/25	10,000
단향사	이상채	1/30	10,000		김용기	2/25	40,000		 이현직	2/28	20,000		무명씨	3/3	10,000
	지홍	1/30	10,000		나석원	2/25	100,000		임지혜	2/28	20,000		박옥자	3/13	20,000
덕화사 -	법상인	2/21	20,000		오선혜	3/2	20,000		최자영	2/28	20,000		원당	3/14	20,000
	이진승	2/28	10,000	선립사	법상	2/21	20,000		하재희	2/25	100,000		홍춘자	3/6	10,000
		2/4	10,000	성화사	신정회일동	1/24	200,000 자석	자석사	도우	3/20	20,000	힐스	곽방은	3/10	100,000
동해사	김진화	2/4	10,000	0-1-1	20-120	.,		ハゴハ	지현	3/20	20,000	어린이집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⑩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욕망과 집착의 과보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 정사에 계실 때, 너무 과식(過食) 함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 그 때문 에 죽은 어떤 비구에 대해 말씀하 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가 과식해 죽은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그 러했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 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설 산지방에서 앵무새로 태어났다. 그는 바다에 이어진 설산 중턱에 사는 수천 마리 앵무새의 왕이 되 었다. 그에게 아들 한 마리가 있었 다. 그 아들이 힘이 세게 되었을 때 에는 보살은 어느새 눈이 나빠졌 다. 아들은 그 부모를 둥우리에 넣 어 두고 먹이를 구해 와 봉양하였 다. 어느 날 아들은 먹이가 있는 장 소에 가서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섬 하나를 발견하였 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빛 맛나는 열매가 열리는 암라 숲이 있었다. 이튿날 아들은 먹이를 찾아갈 때 가 되어 그 숲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열매즙을 먹고는 그 열매를 가 지고 돌아가 부모에게 드렸다.

"이것은 저 아무 섬에 있는 암라 열매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섬에 가는 앵무새는 반드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리므로 너는 두 번 다시 그 섬에 가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 고 다녔다. 어느 날 섬으로 가 암라 즙을 한껏 마시고는 암라 열매를 따 물고 바다를 건너왔다. 길은 멀 고 또 열매가 무거웠기 때문에 몸 이 피로하여 졸면서 오다가 모처

떨어트렸다. 그는 오던 길에서 차 츰 멀어져 내려 앉아 마침내 물속 에 떨어졌다. 그 때 물고기 한마리 가 와서 그를 잡아먹고 말았다. 돌 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 으므로 보살은 그가 바다에 떨어 져 죽은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 부모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부 처님으로서 다음 게송을 읊으셨

새가 음식에 있어서 그 분량을 잘 알았다면 그는 오래 살고 또 부모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분하 게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탐하지 않고 분량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기운이 약해지고 절제하면 그 기운 약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다 시 네 가지 진리를 연설하셨다. 그 때에 사람들은 예류과, 일래과, 불관 과 또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 시켜 "그 때의 앵무새 새끼는 지금 의 저 절제하지 못한 비구요, 그 앵 무새의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 셨다." <본생경 제255>

우리는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 는 일인데요."라는 말을 한다. 실제 로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가 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일을 탁발을 통 통해 시주자는 복을 짓고 수행자는 작했음을 말한다. 그러다가 전염병 차식)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 럼 가지고 오는 열매를 부리에서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행

을 하고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로써 시주자에게 축원을 해 준 다.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 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사 실 모든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라는 교 리로 삼라만상과 일체현상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관계 맺고 있고 이 러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 짐을 말씀하셨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일원 으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하 지만 산업자본주의가 주류가 되 면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은 그 균형을 잃어버렸다. 인간은 생 태계의 일원이 아니라 자연 밖에 서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 고,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익 을 위해 수탈되는 대상으로 전락 했다.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수한 생물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지구의 순환시스템은 붕 괴되고 급속하게 가열되고 있다. 는 일이다. (100년에 1도가 상승한 지구온난 화가 인간에게는 급속하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45억년 지구의 역사 에서는 급속한 것이 사실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그렇다. 사 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육하고 이용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지금처 럼 동물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경우 는 없었다.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 은 동물이 생명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 돌면 예방적 살처분으로 병에 걸린 가축뿐만 아니라 멀쩡한 가축 들까지 대량 학살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3~40년 사이에 육류소비가 10배 이상 늘었다. 비 만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당뇨, 고 혈압과 같은 성인병도 증가하였다. 과식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 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식탐 이 과식을 부르고 결국 질병과 죽 음을 불러 온다. 더구나 지구 한편 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 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식생활을 깊이 성찰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 서 고통을 겪는 원인이 욕망과 집 착에 있다고 가르치셨다. 식탐으 로 인한 과식과 그로 인한 질병과 죽음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명하 게 보여준다. 단지 먹는 것뿐만 아 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연 기(緣起)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하면서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지 금의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하는 행위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잘 살피면서 생각하고 말하 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신구의 (身口意) 삼업(三業)을 청정히 하

五觀偈(오관게, 공양게송)

計功多少量彼來處(계공다소량피 래처)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村己德行全缺應供(촌기덕행전결 응공)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防心離過貪等爲宗(방심이과탐등 위종)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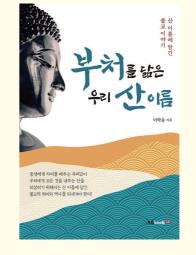
正思良藥爲療形枯(정사량약위료 형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습니다



부처를 닮은 우리 산 이름

산 이름은 불교문화의 유산



저자 이학송 판형 151*226mm | 230쪽 출간일 2022년 2월 18일 정가 14,000원 출판사 북랩book

문수, 보현, 관음, 미륵, 원효, 의상 등 보살 이름과 스님 이름이 들어간 산의 이름이 왜 많을까? 결국 산 이름은 그 시대 삶과 정 신이 담긴 문화현상이 아닐까?

군승 출신으로 의정부 광동중. 고등학교, 부산 장안중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한 이학송 종로사회 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부처를 닮은 우리 산 고 있다. 이름>을 최근 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산에 부처님을 닮은 이름을 지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 였다. 인왕산, 오대산, 속리산, 무 등산, 가야산, 금정산, 한라산, 금 강산 등 수많은 우리 산의 이름이 불교문화와 함께 만들어졌다. 이 는 이역만리에서 탄생한 불교가 동방의 끝에서 불국정토로 피어 났던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총 1부에서 9부까지 서울, 경 기, 강원도와 북한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얼굴을 닮은 불암산(佛巖

山), 기도 정진으로 부처님을 친 견하는 수리산(修理山), 미륵 부 처님의 세계 용화산(龍華山), 중 생 세계에 우뚝 솟은 금산(金山), 마이산(馬耳山), 온갖 보배로움 으로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칠보산(七寶山) 등 남북한 90여 개에 다다르는 곳의 우리 산 이름 의 불교적 의미와 역사를 정리하

저자는 책을 통해 "산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주는 부처를 닮았다. 난방을 위한 땔감과 집을 짓기 위한 목재를 제공해주었고, 과실과 약재를 통해 중생의 생명 을 지켜주었다. 전쟁과 천재지변 이 발생했을 때는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은 수행 을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었 다"면서 "황폐해진 산을 다시 살 리기 위해서는 산을 부처님같이 여겼던 불교문화 정신을 계승해 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봉사는 부처님 가르침 일상에서 실천하는 보시행"

미용 봉사 30년째 맞이하는 정각사 이승이 교도



올해로 나이 칠순이 된 이승이 교도는 30년째 미용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딸 엄순심씨도 함께 하고 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편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말씀하 신 보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미용경력 42년, 올해로 칠순을 맞 은 이승이 교도는 무려 30년째 미용 봉사활동 중이다. 스물여덟에 고모 님의 제도로 울산 실보사에 입문하 여, 서울 총지사 15년, 지금은 부산 정각사에서 진언행자로서 또 평생

봉사자로서의 삶을 펼치고 있다.

승이컷트샵 미용실(경남 양산시 서창로 121) 원장인 이승이 교도는 울산의 한 회사 구내 미용실을 운영 하면서 처음 머리를 다듬어주는 미 용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했다. 총지사에 다니 면서 총지사 교도뿐만 아니라 수원 복지센터에서도 무료로 독거노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미용 봉사를 계속

2012년도에는 화성시자원봉사센 터와 함께 몽고의 오지까지 달려가 일주일간이나 머물며 봉사를 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두 차례 표창장 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의 미 용 봉사 혜택을 누린 사람은 최소 수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경남 양산으로 이사를 오 면서도 정각사에서 교도의 길과 봉 사의 길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월초불공이 끝나는 자성일에는 교 도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다. 밖에 서는 양산시와 접한 금정구 이미용 협회에 직접 연락해 봉사가 가능한 곳을 수소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정구 부곡4동 행정복 지센터 내에 '오시게 청춘 미용실' 을 열고 주민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부곡4동과 이승이 교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 끼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 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 회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왔다. 물론 지금도 휠체어, 암투병 환자뿐만 아 니라 코로나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 을 위해 '찾아가게' 서비스도 미용 업과 봉사를 동시에 물려받은 둘째

딸 엄순심 씨(47세)와 함께 하고 있

송대희(부곡 4동) 어르신은 "나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 가 내 눈썹까지 잘라주겠습니까. 이 발소에 가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 요. 최고예요."라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년부터 꾸준히 무료 미용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주민도 "요 즘 미용실에 한 번 가면 1만 원이 넘 는데, 빈약한 주머니 사정으로 부담 이 될 때가 많아요. 무료에 솜씨까 지 좋아서 앞으로도 단골이 되려고 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우리 각자님도 저를 보면서 본인 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집 수리 봉사를 하고 싶어 해요. 함께 다니면서 더 많은 기쁨과 보람을 나 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 하는 한 계속할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이 보시의 공덕 이라 설하셨다. 이승이 교도가 오랫 동안 더욱 큰 밝음으로 이웃의 부처 가 되어주기를 기원해 본다.

박재원 기자

종령 법공 예하 '즉문즉설' 법문 수인사, 3월 27일 자성일 특별 법회 봉행



종령 법공 예하가 지난 3월 27일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 자성일 법회에 참석해 특별 법문을 펼쳤다. 이날 자리에서 종령 법 공 예하는 상반기 49일 불공 중인 교도들의 수행정진을 함께 점검 하며, 교도들의 질의에 바로 답하는 '즉문즉설'의 형식으로 법석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포항시 라정기 북구청장, 북구 이승헌 중앙동 장,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청년회 김상일 고문이 방문해 동 참하고, 수인회 도시락 나눔 봉사에도 함께 했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故 문정임 님 (3월 18일 입적, 보명심 전수 모친, 우인 정사 빙모)

故 선화순 님 (3월 25일 입적, 정각사 이승이 교도 모친)

총/지/문/답 🕡 가정본존(家庭本尊) 다라니

서원당에 모셔져 있는 본존을 개 인의 가정에 모셔 놓는데, 이를 가 정본존 또는 가정다라니라고 한다. 가정본존을 집에 모셔 놓는 이유는 서원당에 나올 수 없는 교도들이 집 에서도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이다. 가정본존을 모시 리고, 가정방문 일정을 함께 의논 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 늘 예배하는 생활은 불제자의 도

불공, 처처불공으로 어떤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불공을 하여 즉신성불 을 이루는 것이다.

하여 가정본존봉안 불사를 행하도 리요, 진언행자로서의 의무라 할 수 록 한다. 특히 이사를 하게 될 때는 이사를 가기 전에 '가정본존이안불 불교총지종의 수행지표는 시시 사'를 하고, 이사를 간 후에는 '가정 본존봉안 불사'를 올린다. 부득이 한 경우 이사 가기 전의 이안불사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진언행자라면 당연히 가정본존 가정본존의 봉안을 희망하는 교 사 후에 봉안불사는 필히 하여야 한 을 봉안하여 진언염송을 생활화하 모는 먼저 사원의 스승님께 말씀 드 다. 가정본존은 불교총지종 통리원



총지스케치 상반기 49일 불공회향 우리로 부처성 같이 202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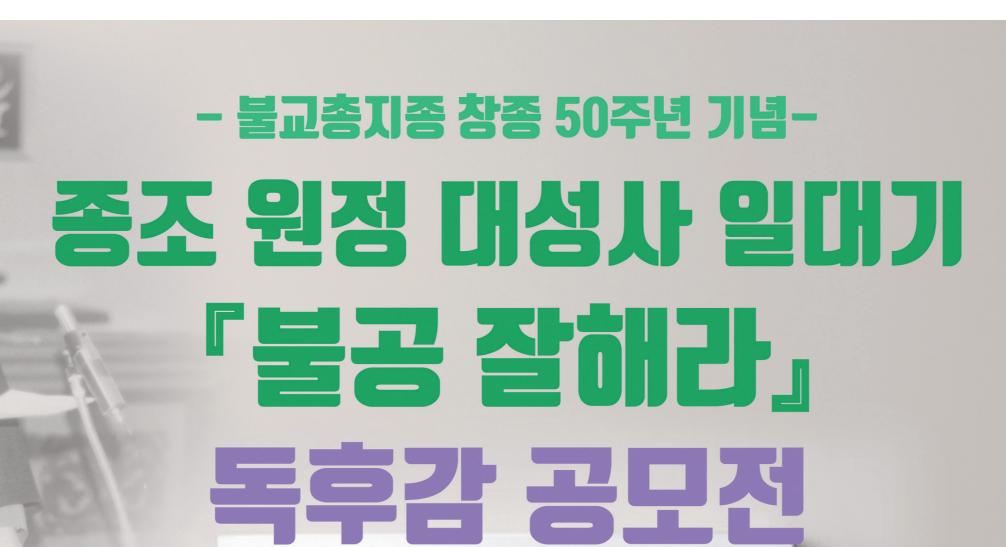
불교송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i>7</i> 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 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진호국가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월초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선립사
		10 A11-1		수계사
		서울,경기교구		수인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승천사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제석사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관음사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단향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덕화사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밀행사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법성사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삼밀사
				성화사
		충청,전라교구		실보사
=11			(0.10)000	운천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일상사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자석사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정각사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화음사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동해사

시한 교급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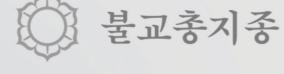


만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 같아서 한 번 생각하면 착한 복을 얻게 살려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 죄를 면하며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는 벌레 등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되는 발레 등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되는 일제 등 일제 유정이 소해 보살의 되는 의료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외도의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혜, 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사이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의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행하는 의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현실

물 공 작 작 해 라 라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하면,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사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행하는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상내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다음을 가지고



공모내용	'불공 잘해라'를 읽고 독후감 제출
응모자격	교도 및 독자 누구나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A4 용지 10point 2매 내외)
접수기간	총기 51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접수방법	이메일 news@chongji.or.kr 또는 방문 접수
수상자 발표	7월 중 발표 후 총지신문 게재
시상식	창종 5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
시상 내역	종령상, 통리원장상, 종의회의장상 외 (상패 및 부상 수여)

